

지역 매 아리

정읍시보건소,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가 2019년에도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로 앞장서겠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소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관리를 위해 기초검진을 실시하며, 노년기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지난 7일부터 3월 말까지 선정된 읍·면·동지역 108개소 거점 경로당을 방문하여 기초검진과 만성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활기찬 노후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검진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빈혈, 체성분 등을 검사하여 유질환자와 건강행태 고위험 어르신을 방문건강관리 대상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검진 중 정밀검사나 합병증 검사가 필요되는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길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올해는 어르신들이 평소 접하지 못하는 떡볶이와 원예활동, 마음요법(액자만들기), 토탈공예(비누만들기),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체험과 어르신간의 교류를 갖도록 하여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사고 대비 합동점검 실시

정읍시는 동절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월 25일까지 농촌관광 휴양시설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 관광농원 3개소, 농촌민박 59개소를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7일에 정읍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해당 읍·면·동 담당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이어 8일에는 건축사와 함께 합동으로 소방가스안전, 전기안전 특별점검에 나서 객실규모가 큰 농어촌민박을 합동 점검했다.

주요점검 사항은 농어촌 민박의 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관리 상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이며, 안전사고 관리 예방을 위한 건물 구조체의 균열 바리, 전기시설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보일러 가스 누출 확인 등이다. 특히, 농어촌 민박의 난방 보일러 사용 상태에 대해 배기 및 환기통 정상 작동 여부, 이음매 연결부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박사업자에게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자가 설치하도록 행정 지도하여 농어촌민박 시설 이용자의 안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삼락농정으로 부자어촌 꿈꾼다

부안 변산 앞바다 통합 채취 한창... 경쟁력 있는 고소득 양식품목으로 기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앞바다에 통합양식 성공과 함께 통합 채취 작업으로 양식어업인들의 손길이 바쁘다.

통합양식이 성공하기까지는 2017년 5월 전라북도 삼락농정시·군특화사업으로 지원(3.5억)을 받아 새만금 내외측 어촌계(대항, 문포, 조포, 창북, 장신, 돈지, 백련) 어업인들이 뜻을 모아 변산반도 통합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공동투자, 공동배분을 원칙으로 통합양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7년 12월초까지 양식장 10ha를 조성하고 통합의 주 산란기인 2~3월경 자연채묘하고 2~3월 통합치패를 분방하여 성육과정을 거쳐 12월말 부터 채취를 시작하여 500~600여톤 예상 생산량은 올릴 목표로 차가운 겨울 아침을 가르며 작업인력 13명은 변산반도 2호(양식장 관리선 16톤)에 승선하여 바다로 통합을 채취하러 나간다.

당일 채취한 통합은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1kg 1,000원에 판매하기도 하며 점차적으로 도·소매시장에 변산반도 통합을 납품할 계획이다.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앞바다에 통합양식 성공과 함께 통합 채취 작업으로 양식어업인들의 손길이 바쁘다.

또한 어촌계(영어법인)에서는 변산반도 통합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와 안정적 판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머리를 한 대 모으고 있다.

통합은 일명 참돔치라고도 부르며, 철분, 칼륨, 인 등이 풍부하고 빈혈예방에도 좋으며 베타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기능 보호에도 좋아 술안주로도 제격이라고 한다.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항산화 작용을 해 노화방지도 좋다고 한다.

부안 변산반도 정정바다에서 생

산되고 있는 통합이 건강한 먹거리로 정착 되고 대국민 식탁에 오르기 까지 굵은 땀을 흘리고 있는 어업인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이 안정적 소비문화가 조기 정착되길 바란다.

한편, 부안군에서는 통합을 1차 양식어업에 그치지 않고 가공, 유통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고소득 양식품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새해에도 소리없이 헌신하는 직원 적극 발굴

고창경찰서, 숨은 일꾼 즉각 격려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새해에도 소리없이 헌신하는 직원들을 적극 발굴 암묵지 일꾼으로 선정 경찰서장 장려장을 전수 격려하고 있다.

암묵지경찰관이란 평소 각자 맡은 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동료들 발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중인 프로그램으로 내부고객들의 비위예방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심문파출소 류관상 경위와 부안파출소 손상린 순경은 순찰근무 중 관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요구호자의 집에 데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변을 1시간 동안 살피며 수색 방파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요구호자를 발견하여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한 유공 등으로 암묵지 일꾼으로 선정하였다.

새해 첫 수상의 기쁨을 안은 부안파출소 손상린 순경은 "경찰관이란 장마당히 해야할 일을 한 것 뿐인데 장



류관상 경위 손상린 순경

려장까지 받게되니 사기 진작이 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청문감사실에서는 평소 맡은 소임을 묵묵히 해내는 직원들을 암묵지로 발굴하여 선정해 장려장까지 직접 전달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김성재 경찰서장은 "모든 직원들이 주어진 소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공직자로서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국민의 존경과 무한한 신뢰를 받는 경찰관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3주년 기념행사 열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10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3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보국안민과 제국국민 등 혁명정신 계승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유기상 고창군수, 김영호 군의회 부의장,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기근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상임고문, 천도교 중앙총부 이범창 중무원장, 박남준 교무관장, 전성준 전봉준 장군 후손, 전해철 전봉준장군 기념사업회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이며 민백성이 마음을 함께하여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아 '무장포고

문'을 선포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 출발을 일컫는 역사적인 곳이다.

기념행사는 봉정로식으로 현수, 봉정, 163송이의 현화와 전봉준 장군이 서울로 팔려가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사용했던 죽력고(대나무즙에 솔잎, 창포 등) 발효한 증류주를 올리는 순으로 진행했다.

유기상 군수는 축사에서 "사람이 희망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되새기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군민께 다가가겠다"며 "진격로 정비사업, 전라천년 파랑새 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앞장서며 자랑스러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무장면 송와 선생 공적비 · 생가 현충시설 지정

고창군 출신 독립운동가인 송와 박영관 선생의 공적비와 생가가 국가 지정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국가보훈처가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창군 무장면에 있는 애국지사 송와 박영관 선생의 공적비와 생가를 국가 지정 현충시설로 지정했다.

송와 박영관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15일 무장읍내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1923년경부터 독립운동에 쓰일 군자금들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로 전달했다. 이 금액은 1928년 까지 7만5000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제의 '동양척식 이리 지점'을 습격하기로 모의하던 중 계획이 탄로나 일경에 체포되고, 모진 고문을 받아 반신불수의 몸이 됐다. 이처럼 조국의 자주적인 독립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독립운동가인 박영관 선생은 지난 1990년에 건



국가 지정 현충시설로 지정된 송와 박영관 선생의 공적비.

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 바 있다.

고창군은 선생의 후손을 주축으로 하는 송와 기념사업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선생의 생가를 현충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건의활동을 펼쳐왔고,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적비(2018년 10월 건립)와 생가 현충

시설로 지정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현충시설 지정으로 송와 선생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는 물론, 고창 지역내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1,2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규모(1종~5종) 및 지역(읍·면지역, 동(洞)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의 정액세를 구분 부과하고 있다.

면허 종류별로 △1종 5,854건 1억 7,300만원 △2종 974건 2,500만원 △3종 2,161건 1억2,300만원 △4종 5,865

건 7,700만원 △5종 2,150건 1,300만원으로 모두 1만7,004건에 4억1,200만원이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건수는 11%(1,677건), 액수는 13.8%(5,000만원)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는 전기사업 발전허가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정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60
www.gangsanwine.com